

# 여름철 전기 450kWh 쓰면 요금 7.7만→5.7만원

한국전력, 누진제 요금완화제 올 7~8월도 시행 예정

정부, 역대급 폭염 예보에 최대 1억19만kW 전력 확보

#세종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자주 켜 평소보다 많은 월 450킬로와트시(kWh) 전기를 사용했다. 이 정도 사용량이면 전기요금 7만7000원가량이 나와야 하지만 여름철 누진제 완화요금에 적용돼 5만7000원가량만 내면 됐다. 약 26%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2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불볕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이 다시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7~8월 두달 간 전기 사용분에 한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기존 주택용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누진제 완화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0~200kWh)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지난해 도입된 누진제 완화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

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일례로 월 전기 사용량이 350kWh라면 4만8445원을 내야 하지만 9460원(20%)이 할인돼 3만8985원만 내면 된다. 만약 전기 사용량이 많아 월 600kWh를 썼다면 현행 요금은 11만9660원이지만 누진제 완화 요금제를 적용받은 후엔 10만5565원만 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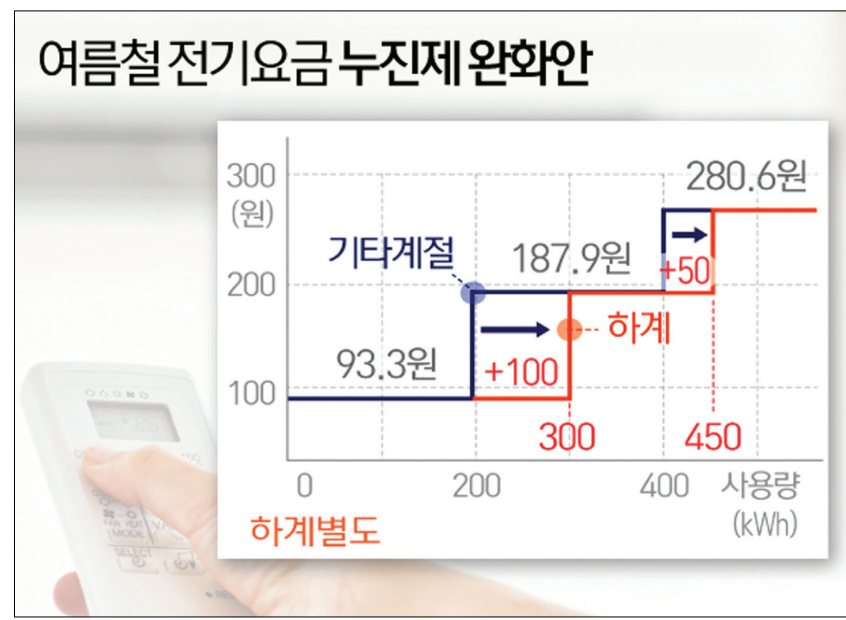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 각 가정에서 별도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기준 7~8월에 약 1472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했다. 가구당 월 평균 9600원 쯤이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폭염일수

가 더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 여름 최고 기온 33도가 넘는 '폭염일' 수를 약 20일 수준으로 예측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2018년(31.5일)과 1994년(31일)보다 적지만 평년에 비하면 가장 무더운 여름 중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부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망 908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기록시기(피크시기)는 이번달 마지막 주에서 다음달 둘째 주 사이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이 시기 전력 공급능력을 1억19만kW 확보했다. 이는 역대 여름철 수급기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가구의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초수급자나 장

어진 등에 대한 주택용 전기료 할인 한도도 7~9월에는 2만원으로 평상시보다 4000원이 늘리고, 3개월의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실시한다.

최이슬 기자

## “명품 재고판매 · 재난지원금 효과”...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소폭 개선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82...백화점 큰 폭 개선



‘대한민국 동행세일’ 2주 차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참가한다.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이 역대 최악인 지난 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부자들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3분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돼 소비심리가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가 8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분기(66)에 비해 16포인트(p) 상승한 수

준이다. 다만 모든 업종이 여전히 100 이하를 기록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기업활동과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예측을 종합해 지수화한 지표다.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3분기 RBSI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은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한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2월부터 연속 하락하던 지수가 4월 최저점을 찍고 5월부터 소폭 회복하며 6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종에 따른 온도 차는 존재했다. 백화점은 가장 높은 상승 폭(32p)을 기록하며 업황 개선 전

망이 강했다. 최근 ‘동행세일’과 ‘명품 국내판매’ 등과 같은 판촉행사를 통해 매출 반전에 성공했고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여름휴가가 시작되며 의류와 화장품 등 패션잡화의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편의점도 매출 신장과 계절효과에 힘입어 큰 상승 폭(27p)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매출 증가와 함께 모바일 주류(외인) 판매 허용(4월)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떠오르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방문객 급감과 더불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과 생활필수품 온라인에 내주며 지난 분기에 역대 최저 전망치(44)를 기록했다. 2분기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며 매출 진작 효과를 보지 못했다. 3분기 회복 전망도 어둡다. 영업 시간제한과 의무 휴업과 같은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마저 확산하며 전망치(51)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슈퍼마켓도 뚜렷한 실적개선은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주거지역에서 가깝다는 접근성을 이점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사태 때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들 구매처를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반사이익 기간이 짧게 끝났

다. 온라인 · 흡소핑은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전망치(97)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온라인 판매는 생필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을 부진으로 10년 만에 100 밑으로 하락했다. 3분기 전망도 부정적 범위지만 최근 소비심리 회복으로 생활 · 가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만 없다면 지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는 빠른 확산속도로 전례 없는 소비심리 위축을 발생시켰으며 지역내 검역과 무증상 감염 등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분기 전망치는 침체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분기에 강도 높은 소비활성화를 통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4분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정부의 내수진작 대책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경기보장 정책이 적기에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유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뒤따라야 소비회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사태에도 수입차 ‘썩썩’ 서민차 혜택 줄고 고급차 더 늘어”

하반기 개소세 인하폭 줄이고 감면 한도 없애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 성장했다. 벤츠, BMW 등 고급차 브랜드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하반기부터는 고급차 구입에 따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들지만, 기존 100만원까지였던 감면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면서 고가의 승용차일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폭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승용차일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존심 구입만 힘겹게 됐다. 지적이 나온다.

3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 상반기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년동기(10만9314대) 대비 17.3% 늘어난 12만8236대로 집계됐다.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벤츠는 국내에서 3만363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9.8% 증가했다. 뒤를 이은 BMW는 2만5430대로 41.5%나 판매가 증가하는 등 1년 전 차량화재 사태에 따른 판매 감소를 회복했다.

업계에서는 각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효과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가 이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감면하면서 승용차 구입시 최대 1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도 늘긴 했지만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80만8900대로 1년전보다 6%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 격차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감면한도 상한을 없애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차일수록 세금 부담은 늘게 된다.

하반기부터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승용차는 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 3000만원은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가 2000만원부터 10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7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개소세는 1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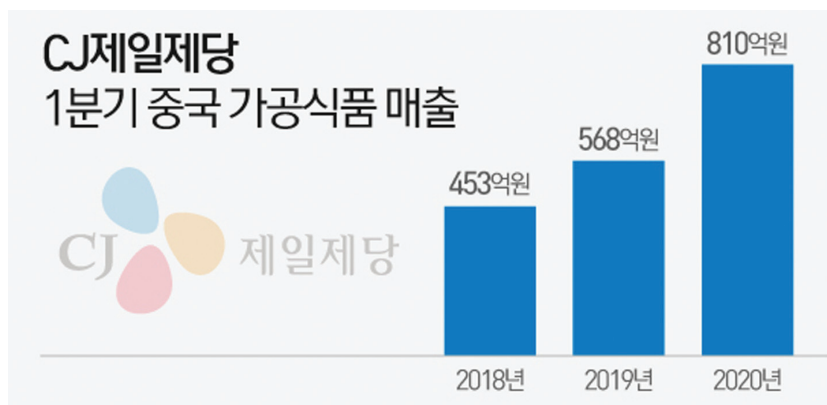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개소세 세율 조정은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이전과 같은 70%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국회 일정 등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우선 적용하고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한 인하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소비나 투자 여력이 좀더 살아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면세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소비 · 투자 · 성장의 유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이나 기자

## ‘韓 만두 · 두부’ 만리장성 넘었다...온라인의 힘

‘비비고 왕교자’ 징동닷컴 시장 점유율 선두



한국 만두 · 두부가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술력과 중국 온라인 입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성과가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CJ제일제당 만두는 중주

국 제품을 밀어내며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비비고 왕교자가 중국 온라인 2등 업체 징동닷컴 교자 · 완탕 부문에서 지난 4월(31%)과 5월

(33%)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소비문화는 국내와 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흐름은 더 빨라졌다. 대형마트 대신 비대면 창구로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국내 기업이 현지 온라인 입점을 늘리고 이벤트를 강화한 이유다.

CJ제일제당은 온라인 강화를 위해 현지 업체를 인수하고 별도 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중국 가공식품 매출은 올해 1분기 810억원으로 전년(568억원) 대비 42% 성장했다. 지난달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대전 ‘618 행사’에서 비비고 매출이 1년 만에 6배 이상 오른 실적을 거두기도

뉴스1